I.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인문계)

1. 2016학년도 인문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

고려대학교의 인문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15학년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다. 그 전까지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한 유형의 시험은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효한데 비해, 사유의 소재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다. 게다가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여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015학년도 입시부터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논술 본연의 모습에 충실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글을 논술문 작성의 재료로 제시하였으며 논제도 보편성이 있도록 선정하였다. 이전에는 제시된 글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유형에서는 제시된 글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그 관계를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전의 유형에서는 완성된 요리가 제공되었다면 새 유형에서는 요리의 재료가 제공되는 격이다. 수험생은 그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자는 수험생이 만든 요리의 완성도를 평가할 것이다.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요리를 제대로 상에 차려냈는지, 또한 그 요리가 먹을 만한지, 등등이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수험생은 주어진 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편의 완성도 높은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 자신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구축되어야 하며 창의성도 발현되어야 한다.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수리논술' 부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고려대학교는 2014년 5월 10일 실시된 모의 논술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을 선보였다. 그 후 입시설명회와 백서를 통해 그 유형을 수험생에게 널리 알렸다. 그리고 2015학년도 논술시험에서 그 형태대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년에 시행된 모의 논술고사 답안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여전히 이전의 논술고사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술고사 자료집이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6학년도 모의 논술고사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세 개의 글, 주제를 수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그리고 두 개의 논제로 구성되었다.

①은 소크라테스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임을 보여준다. 물론 그의 논변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합의는 각 개인이 법의 준수에 대한 동의가 집합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이해하는 동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제시되는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동의와 이것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가 진정한 동의나 사회적 합의가 아닐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해하는 동의나 사회적 합의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의 출전은 플라톤의 『크리톤』으로 출제의 필요에 의해 원문이 다소 가공되었다.

②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리스를 만든 영웅들』에서 취한 글이다. 이 글은 자신의 나라 스파르타를 강한 도시국가로 만들기 위한 리쿠르고스의 혁명적 입법의 과정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외관상 스파르타는 법안의 발의와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갖추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제정된 법은 실제로 나라의 "강함"과 "번영"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특히 당시 그리스에는 많은 폴리스들 간의 전쟁이 다발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리쿠르고스의 입법 및 통치 과정은 나라의 부강과 시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아무런 정당성의 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였다. 시민들은 사유재산도 사적인 삶도, 심지어 가정의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국가라는 전체의 부분일 뿐이었다. 나라의 교육도 시민에게 오로지 "복종 연습"만을 강요했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하는 사유와 판단의 능력은 전혀 배양해 주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제시문은 스파르타의 입법 과정이 공정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스파르타 법의 개정 가능성을 봉쇄하는 리쿠르고스의 선택에는 법적 강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합의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완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의 정당성을 비판, 검토하는 지속적, 반복적 과정이어야 함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이 글은 출제진의 의도에 맞추어 편집되었다.

③의 가막도는 외딴섬이다. 정기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찾는 이도 없어서 외부세계와 단절되다시피 한 그 섬에서 주민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가막도 주민들이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룬 까닭은 외부세계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한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막도는 외부세계와 접촉할 때마다 배신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 경험이 가막도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해 적대적이 되도록 하였다. 가막도는 국가의 법과 무관한 그 나름의 관습법에 따라 그 내적 질서를 구축한다. 국가의 법이 미치지 못할 만큼 소외되어 있다는 지정학적 특징이 가막도의 독립적인 관습법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인규는 휴가를 맞아 바다낚시를 하러 가막도에 들어왔다가 발이 묶인다. 인규가 섬의 비밀을 알아챘다고 여긴 가막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는 그의 발길을 저지한 것이다. ③에서 인규는 살인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한 주민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가막도가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관습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인규의 주장이다. 그 주장에 대해 사내는 마을 협의체인 향당회의를 언급하면서 그 회의에 의해 가막도의 질서가 마련된다고 한다. 이 글은 법의 정당성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다는 전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정 집단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그 내적인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국가의 법을 위반해도 무방한가, 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사회적 합의의 다른 층위들에 대해 사유를 전개할 수 있으며 국가의 법이 보편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도 ①과②를 함께 고려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출처는 홍성원의 장편소설 『마지막 우상』이다.

④는 사회적 이익과 지배자의 개인적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지배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의 존재가 법령이 없을 때에 비해 사회적 이익을 더 크게 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있다. 하지만 법령의 제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사전적으로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할지 몰라도 사후적으로는 원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논제 해설

가) 논제 I

1) 출제 의도

이 논제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논술문 작성을 수험생에게 요구한다.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서 주제와 관련된 세 편의 글이 제공된다. 수험생은 우선 그 글들의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해야 한다. ①과 ②와 ③은 주제에 대한 다른 시각과 다른 층위의 사유를 전개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조합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글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들 간의 관계 짓기는 본격적인 답안 작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된다. 논제에서는 '논술하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들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고 그 글들 사이에서 파악된 관계를 서술한다면 이 논제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논제의 그 어디에도 제시된 글을 요약하거나 그 글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이 논제에서는 세 개의 글을 가리키면서 그 글들이 논술의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여기서 '활용'이란 글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리의 틀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하도록 그 글들을 포섭해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험생은 자신의 견해에 의거한 그 글의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다. 수험생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유한다면 주어진 글들의 활용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논술하시오'라는 지시는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다. 잘 짜인 논술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수험생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연하지 않겠다. 타당한 논리를 정확한 문장을 통해 전개됨으로써 논자의 생각이 설득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설명 정도를 덧붙여 두겠다.

2) 평가 항목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ㄱ) 글의 내용:
(i) 글 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법의 준수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 개인이 국가의 법과 개별적으로 맺는 합의의 총체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 거주지에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거주지의 법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 거주자는 법과의 합의 이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실정법을 위반한 자가 법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탈출하려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즉 거주지의 법을 위반한 이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ii) 글 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스파르타에서는 원로원의 발의, 시민 찬반투표, 원로원과 왕의 거부권 행사의 3단계 입법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이었다고 해도 스파르타 법에 포함된 신생아의 생사여탈, 복종 연습 위주의 교육, 전쟁 준비 몰두의 내용들은 반인권적이다.
- 스파르타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은 우민화를 유발함으로써 법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만한 비판적 의식의 결여를 초래하였다.
- 리쿠르고스는 교묘한 계략으로 법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호도하였다. 리쿠르고스가 신의 확인을 받아올 때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스파르타의 백성들의 사회적 합의는 그가 자살함으로써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i) 글 ③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합의의 주체로서 특정 사회가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다고 해도 관습과 전통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 가막도 주민들은 향당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풍습을 정하고 이를 지켜오고 있다.
- 가막도 주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한 관습과 전통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 용납해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다.
- 법을 제정할 때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수험생은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여기서 글의 '활용'은 주어진 글의 단순한 요약이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적당한 배합을 뜻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주어진 글에서 발견하는 여러 내용들을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에 맞춰 적절히 취사선택한 후 그것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수험생의 글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의지에 의해 거주하기로 선택한 국가의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조건 준수하여야 하는가? (위법한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가? 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없는가?)
- 법 제정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은 완전한가?
- 국민들은 국가의 번영을 내세우며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는 절대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가? (국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가?)

(v)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 특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논술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 제시문의 요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즉,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특정한 논제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논거가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
- 자신의 논제에 대해 독창적인 논거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
- 두 개의 제시문을 단순 비교하거나, 어느 하나를 기준삼아 다른 하나를 해석 및 분석하는 경우(즉, 무조건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기존 논술 형식을 따른 경우).

ㄴ) 글의 구성
(i)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성격의 글임을 고려할 때,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ii)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iii) 문장이 유려하며,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ㄷ) 글의 형식
(i)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하였는가?
(ii) 비문을 쓰지 않았는가?
(iii)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였는가?

나) 논제 Ⅱ

1) 출제 의도

글 ③은 사회적 이익과 지배자의 개인적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지배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의 존재가 법령이 없을 때에 비해 사회적 이익을 더 크게 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있다. 또 사전적으로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할지 몰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령을 어기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

2) 평가 항목

1. 〔예측 1〕 하에서는 〔정책 1〕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므로 시민들이 왕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2. 각 예측 하에서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은 각각 〔정책 1〕, 〔정책 2〕, 〔정책 3〕이다. 이외의 정책이 선택될 때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각 정책이 선택될 때 왕의 개인적인 이익은 다음과 같다.

	정책 1	정책 2	정책 3
예측 1	7	5-6=-1	10-6=4
예측 2	5-6=-1	7	10-6=4
예측 3	5-6=-1	5-6=-1	10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왕은 〔예측 1〕, 〔예측 2〕, 〔예측 3〕 하에서 각각 〔정책 1〕, 〔정책 2〕, 〔정책 3〕을 선택한다.

3. 왕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예측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개인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 3〕을 선택할 것이다.

4. 〔정책 3〕을 선택하면 무조건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 예측 항에서 각 정책을 선택할 때 왕의 개인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정책 1	정책 2	정책 3
예측 1	7	5	10-6=4
예측 2	5	7	10-6=4
예측 3	5	5	10-6=4

따라서 왕은 〔예측 1〕 하에서는 〔정책 1〕을, 〔예측 2〕 하에서는 〔정책 2〕를, 〔예측 3〕 하에서는 〔정책 1 또는 2〕를 선택한다. 이 경우 사회의 기대 이익은 150*0.4+150*0.4+50*0.2=130이다. 법령이 없을 때 왕은 항상 〔정책 3〕을 선택하므로 사회의 기대이익은 100이다. 따라서 법령의 존재가 사회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킨다.

만약, 〔예측 3〕이 실현된다면 법령이 없을 때 왕은 〔정책 3〕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익은 100이지만, 법령이 있으므로 왕은 〔정책 1 또는 2〕를 선택하고 사회적 이익은 50이다. 즉, 사전적으로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예측 3〕이 실현되면 법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사후적으로 법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해 보일 지라도 사전적으로는 그런 법령에 동의하는 것이 더 좋다.)

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1. 논제 I

가) 총평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논제 I 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은 종전의 유형에 맞춘 답안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유형에서는 답안의 구성과 거기서 다룰 내용이 이미 논제에 제시되어 있었고 수험생은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되었다. 그에 비해 이번 모의논술의 논제는 보편적인 의미의 '잘된 글'을 쓸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한다. 답안이 '잘된 글'이 되자면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하며, 국어 문법의 면에서 정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종하는 경우도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한다.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 포섭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연한 내용은 '논술하시오'라는 논제의 지시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 훌륭한 논술문은 정확한 문장으로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여 논자만의 창의적인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

모의논술 답안들 중에서 전술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은 적은 편이었다. 많은 수험생들이 논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유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다. 2015년부터 새로 마련한 유형은 종전의 유형을 대체하고 폐기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논제의 지시 사항은 무시한 채 종전의 유형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고 평가를 요구하였다. 논제 I 의 그 어디에도 주어진 글을 요약하라거나 글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라는 지시는 없다. 그 논제는 수험생에게 주제에 관한 논술문을 작성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답안들이 ①과 ②와 ③을 순서대로 요약한 뒤 그 글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설명한 후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답안은 문제를 잘못을 읽은 것으로서 잘못된 답안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음은 논제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전형적 사례들에 해당되는 답안들이다. 답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타자하였기 때문에 예로 든 답안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가 세 지문을 순서대로 요약한 경우이다. 다음의 사례는 지문을 순서대로 단순히 요약할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 제시문 ①, ②, ③에서 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의 관계를 달리한다.
>
> 제시문 ①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은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은 자신이 합의한 법에 복종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히 처벌받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를 사랑하는 것은 법에 합의한 것과 같으므로 법률과 재판 판정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법에 사회 구성원이 복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
> 제시문 ②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이후에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 스파르타의 공동체 지향적인 법과 제도는 왕과 원로원, 시민의 동의하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 법은 구성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복종이라는 가치를 교육하고 주입하였고, 결국 리쿠르고스의 법은 구성원들의 복종을 기반으로 스파

르타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리쿠르고스는 자신의 법이 스파르타에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는 생각에 기뻐했으며, 신탁을 받으러 가기 전 국민들과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신탁을 받은 후 그는 법의 영원한 유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택했다.

제시문 ③에서 법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는 않는다. 가막도 사람들은 국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풍습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는 국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에 가막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법이 아니라, 자신들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향당회의의 결정에 합의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떠돌아도 그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내가 국법이 만능은 아니며, 국법이 항상 옳고 공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에서도 법이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들이 글쓴이의 논리 전개를 위한 논거로 사용되어야 비로소 '활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답안은 '논술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였는데 그것은 답안이 지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안에는 있어야 할 많은 것이 누락되어 있다. 단순 요약은 논술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흔한 사례는 세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힌 후 그 글들의 내용을 차례로 요약한 경우이다.

1, 2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3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분리된 사례를 소개한다.

1은 법률을 따르는 것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를 사랑했기에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그 누구보다 더 동의했다. 여기에서 법과 사회적 합의는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법과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죽음을 택한 후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2는 사회적 합의가 법보다 선행된 경우를 보여준다. 리쿠르고스는 입법과정에서 투표와 거부권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 그는 기존의 정체를 준수하겠다는 시민들의 맹세를 받고 델포이 신의 확인을, 즉 신의 합의를 받기 위해 떠난다. 신은 그에게 그의 법이 국가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답을 내려준다. 이후 리쿠르고스는 시민들의 맹세, 즉 기존 정체를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믿고 자살한다. 리쿠르고스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였으며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오는 것이라 믿었다.

3은 국가의 법과 사회적 합의가 그 길을 같이 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외부 사회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가막도에서 인정하는 죄를 짓지 않는 한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가막도에서는 마을의 향당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섬 주민들에게는 제정된 법보다 이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며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3은 국법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제시문 1, 2, 3 모두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말한다. 1은 법이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다고, 2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 법이 있다고 한다. 이 둘은 사회적 합의와 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3은 법과 사회적 합의는 꼭 연관되어있지 않으며 따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위의 답안은 도입부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세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 언급한 후 본론 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문들에 대한 요약으로 채운다. 이어서 세 지문들 간의 주제적 연관 관계를 부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첫째 사례에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가 추가된 경우이다. 이 역시 논제의 요구에서 벗어난 답안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답안 사례는 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각각에 대해 논평을 한 경우이다.

사회적 합의는 실제 행동으로 법률과 합의를 한 것이다. 1에 따르면 법은 시민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교육한 존재이다. 그런 법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면 법과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주를 이전하지 않는 행동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라를 떠남으로서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합의 때문이다. 계속 아테네에 거주함으로서 법률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뜻을 거부하여 나라의 뜻을 따른다는 합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나라를 지도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에 따르면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이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개인은 어렸을 때부터 규칙과 제도 하에 교육받아야 하며 국가에 대한 복종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지식 교육을 최소화 하고 복종교육을 최대화 하는 것을 실제로 국가에 적용한 스파르타는 결국 군사적 강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사회에 묶는 법률과 사람들을 사회에 복종시키는 사회적 합의를 고안해 낸 리쿠르고스는 국가의 정체 유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법률과 사회적 합의는 별개의 것이다. 3을 보면 법률인 국법과 사회적 합의인 가막도의 풍습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법률이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막도 주민들이 그들끼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그들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지문을 종합하면 결국 법률은 개인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에 응하고 그 집단에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

위의 답안은 첫 문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자의적으로 정의를 내린 후 지문들의 내용을 차례로 요약한다. 그 요약마다 한 문장 내외의 간단한 논평이 첨부된다. 지문 요약 및 논평이 끝난 후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잘된 논술문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지문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그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한다.

①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을 우선시하며 정해진 법을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②는 사회적 합의와 법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③은 사회적 합의를 법보다 우선시하며 이때의 사회적 합의를 풍습이라 칭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이 정해진 것인지 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닭과 달걀의 관계 같은 것이다. 사람들 간의 합의점을 기록해놓은 것이 법이지만 법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법이 강제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법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법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익을 기대하고 법을 따르지만 만약 법이 그것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르기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은 사람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합의를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 사회로 전환된 후 호주제 폐지가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회의 유지에 기여했던 호주제가 현대에 와서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으로 취급되어 폐지된 것이다.

한편 법보다 풍습을 중시하는 사회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에서 구성원끼리 합의된 내용이 국가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들은 국가와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공유하는 법, 즉 풍습을 형성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풍습은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풍습을 버리고 법을 따를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풍습이 그 집단의 결속을 강화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풍습이 법에 어긋난다면 법은 다수의 합의에 따라 풍습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답안은 지문들을 활용이라는 논제의 요구를 거의 무시한 답안이다. ①, ②, ③의 내용은 130자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 버리고 글의 대부분은 논제가 던진 주제에 대해 논술하고 있지만 그 글은 지문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 그렇게 작성된 글의 논리와 논지가 설령 적절하고 그 내용이 그럴싸하더라도 그런 면들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논제의 요구를 외면한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상기한 경우들은 지문들에 매몰되거나 수렴됨으로써 논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 스스로 논의를 구성하고 지문을 주체적으로 포섭하면서 글을 작성한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시험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답안 작성 중에 사용되는 '제시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활용 자료로 제시된 글을 가리켜 '제시문 1'과 같은 표기하는데 굳이 '제시문'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번호만 표기하면 충분하다. '제시문'이라는 말을 쓰면 전체 1000자 안에서 정작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글자의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① ② ③과 같이 번호만 표기함으로써 원고지의 칸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제시문'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전체 1,000자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음은 인문계 논술시험 논제 I 의 우수 답안과 부족 답안의 사례들이다. 사례마다 논평이 첨부되었다. 그 논평은 해당 답안을 채점한 채점위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나) 우수 답안의 사례

사례 1

법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임에 틀림없다. 법의 시초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을 막기 위해 일종의 규칙을 세워 이에 서로 동의한 것이다. 일정한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통해 약속된 규율과 그에 대한 준수는 분명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반드시 형평성 있는 방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법은 인륜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제시문 3과 같이 살인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규정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범죄의 경중이 달리 취급받는다는 동의가 있다 해도,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 칭할 수 없다. 인륜 또한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지켜왔던 사회적 합의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 간 충돌이 발생할 때, 인간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은 실질적 법치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시문 2에서, 시민들이 국가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철저한 기능론적 통치에 입각해 있다. 개인이 사회의 기란 중 하나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평화롭고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이는 진정한 인간생활 영위와는 거리가 멀다. 제시문 1의 소크라테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법은, 다수의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국가운영을 위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천부인권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법의 기능 중 하나이다.

진정한 의미의 법은 단순한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도출되기 어렵다. 인류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더욱 형평성 있는 사회적 합의가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합의는

동의하는 구성원의 수, 직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이 진정한 의미의 법이다.

<논평>

위 답안은 법의 기저에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밝히고, 그것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평화로운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속된 규율이므로 준수의 의무가 있다고 한 서두의 논리가 탄탄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어서 ①, ②, ③을 활용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①, ②를 활용한 단락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문제를 제기했다. 스파르타에서 제정한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철저히 기능론적 통치에 입각해 국민을 국가적 과업 수행의 부속품으로만 여겼다고 비판했다. 서두에서 법의 기능을 공동체의 평화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사례처럼 법이 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를 뿐이어서 그 근저에 있는 사회적 합의도 퇴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③을 활용한 단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실제로는 관습)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골고루 잘 활용한 가운데 선명한 논지를 펼쳤다고 여겨진다. 다만 활용한 제시문의 순서가 ③, ②, ①로 거꾸로 여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아쉽다. 또 ①로부터 거주지의 자유 선택과 준법의 의무라는 문제를 논하고, ③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의 범위와 한계를 논했다면 더 훌륭한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사례 2

민주주의적 정치체계를 지향하는 모든 집단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법을 제정하며, 이 때 법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동체의 안녕 보장에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1에서는 법률이란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개인이 사회에 존속함으로 합의에 동의를 표한다면 법률은 그 개인에게 강제성을 띤다고 말한다. 이는 법률제정의 근본적 전제인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의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법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떠남으로써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2와 3은 극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2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법안을 채택하지만, 지나치게 사회전체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륜적 가치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결합력에 의한 체제의 굳건한 유지나 국가의 번성을 열망하는 정치 지도자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전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공동체의 이윤증진을 위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법은 올바르지 않다.

3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특정 집단의 판단에 따른 처벌을 상위기관의 법보다 당연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위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특정 집단의 사회적 합의를 지나치게 맹신하여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다. 모든 사회에는 고유한 문화와 독자적인 전통이 있고,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지켜야할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한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는 동서고금과 개별적 문화의 특수성을 막라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모든 법은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적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인륜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통념을 뿌리로 사회발전과 안정을 위해 진지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법이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 정의로운 법일 것이다.

<논평>

잘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①, ②, ③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②, ③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②, ③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고,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합의는 법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①, ②, ③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법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①, ②, ③에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내용적, 절차적, 장소적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①, ②, ③이 보여주는 사회적 합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답안은 좋은 답안이라고 판단된다.

사례 3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1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말뿐이 아닌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

1에서 법률은 소크라테스에게 그가 법률과의 합의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의 조항대로 나라를 경영하였을 때 경영 방식을 보고 머무른다면 법률과 합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수가 아닌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제시문 2의 리쿠르고스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로 스파르타에 혁명을 일으킨다. 입법 단계에서 비록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해 왕은 거부권을 가진다. 즉, 최종 결정의 권한은 시민이 아닌 왕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단계를 거친 법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년들에게 복종 연습을 교육시켰는데 이는 리쿠르고스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뭉치게 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즉,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 시민들의 합의가 아닌 개인의 합의에 의해 혁명을 주도한 것이다.

또한, 합의를 이루는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수 없다. 제시문 3에서 가막도 주민들은 국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풍습대로 살인 소문을 덮으려고 한다. 비록 향당 회의를 통해 가락도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는 풍습이지만 가락도의 풍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가락도의 풍습대로 죄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나쁜 예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은 사회적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져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실천해야 하며 시대가 변해 법을 수정할 때, 사회 구성원들과 합의하여 다시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논평>

위 답안은 ① ② ③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의 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①에서 사회적 합의가 법의 선행조건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직접적인 실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주장을 ②와 연결하여, 합의를 통해 마련된 입법 절차를 통과해 사회적으로 승인된 법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가 다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법이 과도한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해낸다. 또한 ②를 통해 합의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이 논지를 ③과도 연관 지어 법을 무시한 공동체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과정 전반은 논리적

으로 전개되었다. ① ② ③을 잇는 적합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각각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효율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답안이라 하겠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매 시기 다시 이루어져야하며, 법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 역시 자연스러운 동시에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①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한 두 줄 정도의 부연 설명밖에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그럼에도 ①의 논지를 바탕으로 ②를 창의적으로 해석해내었다는 점과 이를 ③과의 논리적인 연결점으로 활용해 창의적인 논지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답안이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무난한 편이며 단락 바꿈과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사례 4

한 사회의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통의를 통해 성립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 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2도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시민들을 국가나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 법의 형식적 측면만 충족하고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 강제력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유를 침범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그 사회에 이상한 관행이나 전통이 행해지고 있다면 때로는 법이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제시문 3에서는 국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풍습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 풍습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마다 차등적용 될 때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풍습이 계속될 경우,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될 것이고 제시문1의 소크라테스처럼 사회를 떠나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그 사회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때로는 엄격하게 그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의 국민에 이익이 되고 또 그들의 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그 법으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의로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수에게 큰 피해가 간다면 그 소수는 분명 사회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개인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이므로 국민의 자발성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논평>

제시문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개한 좋은 글이다. 서론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법의 한계를 지적한 우수한 주장이다. 또한 이처럼 서두에서 자신의 핵심 주장을 먼저 밝히는 연역적인 글쓰기 방식 역시 칭찬할만하다. 그 후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한 법의 예로 제시문 2를 활용하였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예로 제시문 3을 활용하였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문들을 적절하게 활용한 모범적인 글이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상기시키며 사회 구성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법이 제정될 때의 폐해를 지적하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글의 논지를 분명히 기억하도록 만드는 좋은 결론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시문 1의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회를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떠날 수도 있었으나 머물러 살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법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부족 답안의 사례

사례 1

제시문 1,2,3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둘의 지위에 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

제시문 1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 소크라테스가 상상하는 법률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은 아테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법률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자들을 삼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한다. 따라서 법률에 반하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법률을 파멸시키는 행위로 인식하며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통해 그를 통제하고 형벌을 내린다. 이는 법률이 강제적 동의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소크라테스는 이에 순응한다.

제시문 2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스파르타의 지도자인 리쿠르고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는 방법을 통해 스파르타의 혁명적인 변혁을 시행했다. 시민들의 투표를 입법 과정에 포함시켰고, 그 입법의 핵심은 시민들이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이 되게 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복종을 세뇌시킴으로써 스파르타의 사회는 전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는 사회가 되었고, 따라서 스파르타의 사회적 합의는 곧 법률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 체제에 대한 신의 확인을 위해 델포이로 떠난 리쿠르고스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 정체의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제시문 3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 이하의 지위를 가진다. 가막도에서는 법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인정한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막도 마을 향당 회의만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여기고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뭍에서 살인범이 와도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민으로 수용한다. 이를 통해 가막도에서는 법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된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을 향당회의, 즉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정을 법에 의한 판결보다 더 우선시 한다고 할 수 있다.

<논평>

위 답안은 2015학년도부터 크게 바뀐 고려대 논술고사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고려대 논술고사가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은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대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머무르거나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으려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위 답안의 경우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에 응시자가 반사적으로 '관계'라는 핵심어를 도출한 것은 종전 유형의 여파로 해석된다. 더구나 그것을 다소 무리하게 '지위'의 문제로 끌어가려 한 데서 도식화의 함정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위 답안은 '사회적 합의'와 '법' 사이에 어떤 지위의 상하 관계가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각각의 제시문이 '법 > 사회적 합의', '법 = 사회적 합의', '법 < 사회적 합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제시문에 기계적인 틀을 씌우려 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논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나씩 살펴보면, ①을 근거로 법이 사회적 합의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②를 근거로 법이 사회적 합의와 동일하다고 한 주장은 일견 그럴 듯하나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사회적 합의의 지표인지는 의문이다. 또 ③에서 '향당회의'만 '사회적 합의'로 간주하면 그것이 무시하려 하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이 노정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제시문 자체에 대한 요약과 논평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위 답안의 각 문단도 서론-본론-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지 전개의 일부라기보다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에 더 가깝다.

사례 2

위의 글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관계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이익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특정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등에 따라 서로 일치할 수도, 충돌할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이 일치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라고 여겨 개인을 법률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인도한다. 공동체 생활이 개인적 생활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보다 자유롭다. 하지만 지나친 공동체 생활은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의 확보 또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과 자유의지를 경시할 위험이 있다.

반면 사회적 합의와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공동체 내의 합의가 충돌하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국가의 법률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수립과 실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어려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이 계약적 관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법률로써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치한다. 개인 또한 사회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사회를 떠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 한 번 성립된 후에는 개인은 사회의 동의 없이 구성원의 지위를 져버릴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간에 일방적인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논평>

잘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①, ②, ③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위의 답안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적고 있다. 제시된 글을 활용하지 않은 답안은 미리 암기하여 준비해온 글을 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제시된 글에 담긴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좋은 답안이 될 수 없다.

사례 3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의된 질서이지만, 모순되게도 어떤 법은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제시문 1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률과 그 사회적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에서 벗어나려고 도피를 시도한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아테네, 즉 나라를 택하고 국외추방의 형을 포기했었음에도 말이다. 결국에는 법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복종보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시된 것이다.

비슷하게, 제시문 3에서 가막도 주민들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를 밝히지 않는다. 국가보다 더 작지만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바로 제시문 2의 스파르타와 리쿠르고스의 모습이다. 리쿠르고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제정했고 한 평생,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법과 나라에 충실하며 살았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중요성을 지닌 만큼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어져야 하고 사람들 또한 그

렇게 제정된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제시문 2의 리쿠르고스같은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시문 1의 소크라테스와 제시문 3의 가막도 사람들과 같이 개인의 이익, 개인의 가치를 더 중시하면서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한다. 이러한 모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는 기반을 유지함에 있어서 위태로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법이 정말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수결로 결정되었지만 법률에 대한 찬성자의 수만큼 반대자도 많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제정된 법일 때, 그 법을 개인적인 사유로 위반한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논평>

위 답안은 사회적 합의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독창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전반적으로 글이 매끄럽게 전개되는 가운데, 법의 중요성과 법률 제정의 합리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윤리적 측면이 결여된 우리 사회와 현실 전반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① ② ③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과도하게 전개하였다. ①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범법자로 이해한 것, 이를 ③에 나타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사회의 폐쇄성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공통점으로 파악한 것, 나아가 ①과 ③을 법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한 것은 모두 오독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②의 리쿠르고스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제정의 경우로 이해하였으며, 이처럼 과도한 해석에 의해 도출된 관점에 토대를 두고서, 스파르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합리적인 법률로 운영되는 완벽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위 답안은 ① ② ③을 오독하였고, 각각의 논지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오독이나 논지의 자의적 해석은 글에서 ① ② ③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에 전개한 창의적인 주장은 전체적으로는 전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사례 4

1에서는 한 사회에 머무른다면 그 사회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2에서도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3에서는 나라의 법은 항상 공정하지 않다며 마을의 풍습을 중요시 한다. 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 것이 법이다. 따라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1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이 제시한 말빨이 아닌 행동에 그러기로 한 것이라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동의를 한다. 이것으로 나는 소크라테스가 법이 공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에서도 국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법을 비판하며 마을의 풍습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당'이라는 기구가 결정을 한다. 결국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공정하지 않은 법이 많다고 한다. 공정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2처럼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도 시민투표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법은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프로게이머가 외국에서 경기를 하다가 셧다운제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가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관람

객들이 셧다운제라는 법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 나는 이 법이 물론 교육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프로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없애주는 추가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평>

위 답안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들에 매몰되지 않고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글이다. 그러나 공정한 법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는지, 불공정한 법이라도 준수하여야 되는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와 법의 공정성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글이다. 2번째 제시문은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기보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방법과 합의된 법의 비인도적인 내용, 합의의 지속 기간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2번 제시문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논의를 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빈약한 논리와 부적절한 예시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뜬금없이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후 셧다운제 때문에 곤란을 겪은 미성년 프로게이머의 예를 들고 있지만, 그것이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말빨"과 같은 속어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2. 논제 II

가) 우수답안의 사례

사례 1

1. 왕은 예측1을 하고 시민들 또한 왕의 예측을 알고 있다. 따라서 예측1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은 정책1이며 정책1이 아닌 정책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정책1을 선택하였으므로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2. 우선 왕이 예측1을 할 경우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이 최대화 되는 정책은 정책1이며 정책 2, 3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왕이 예측2를 할 경우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이 최대화 되는 정책은 정책2이며 정책 1, 3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왕이 예측3을 할 경우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이 최대화되는 정책은 정책3이며 정책 1, 2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왕의 개인적 이익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⑦	−1	4
예측2	−1	⑦	4
예측3	−1	−1	⑩

따라서 왕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예측1 하에서 정책1을,
예측2 하에서 정책2를,
예측3 하에서 정책 3을 선택할 것이다.

3. 시민들은 왕의 예측을 모르고 제재 또한 가할 수 없으므로 왕은 자신의 예측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최대화 되는 정책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왕의 개인적 이익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5	⑩
예측2	5	7	⑩
예측3	5	5	⑩

따라서 왕은 예측 1, 2, 3 모든 예측 하에서 정책3을 선택할 것이다.

4. 시민들이 왕의 정책3을 택하면 왕에게 크기 6의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이 경우 왕의 개인적 이익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⑦	5	4
예측2	5	⑦	4
예측3	⑤	⑤	4

따라서 이 경우 왕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예측1 하에서 정책1을,
예측2 하에서 정책2를,
예측3 하에서 정책1 또는 2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각 예측 하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은 각각 150, 150, 50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은
(150×4/10)+(150×4/10)+(50×2/10)=60+60+10=130이다.

한편 문제 3번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왕은 모든 예측 하에서 정책3을 택하므로 이 경우 각 예측 하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은 각각 100, 100, 100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은 (100×4/10)+(100×4/10)+(100×2/10)=40+40+20=100이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이라는 관점에서 법령이 제정된다면 기댓값이 100에서 130으로 오르므로 이 법령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왕이 예측3을 할 경우 법령 제정 전에는 정책3을 택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이 100인 반면 법령 제정 후엔 정책1 또는 2를 택해 사회적 이익이 50으로 더 작아진다.

<논평>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답안과 거의 합치될 정도로 우수한 답안이다. 특히 각각의 예측 하에서 왕의 선택 기준이 되는 왕의 개인적 이익을 표로 정리하고, 그 개인적 이익이 최대가 되는 정책 선택을 표시함으로써 설명이 표를 통해 한 눈에 요약되게 하였다. 수리 논술 역시 논술의 한 분야로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답안은 논리적 설명과 표에 의한 요약을 잘 결합해 쓰는 사람이 이해하는 바를 읽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

사례 2

1. (가)의 상황에서 왕이 예측1을 하고 정책1을 선택한 것은 시민들이 누리게 될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이므로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2. 예측1의 상황에서 왕의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정책3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왕에게 크기 6의 손실로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왕이 누리게 될 총 이익의 크기는 4로 감소하므로 왕은 예측1의 상황에서 크기 7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1을 선택할 것이다.
예측2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왕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지 않을 때 가하게 될 제재까지 고려하면 왕은 크기 7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2를 선택할 것이다.
예측 3의 경우에서는 왕의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3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도 극대화하므로 시민들은 왕이 정책3을 선택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예측3의 경우에는 왕은 정책3을 선택한다.

3. (나)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왕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왕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러면 예측 1, 2, 3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3을 선택할 것이다.

4. (나)의 상황에서 정책3을 선택하면 왕이 크기 6의 손실만큼 제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측1의 상황에서는 정책1을, 예측2에서는 정책2를, 예측3에서는 정책1 또는 2를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을 구하면 (0.4×150+0.4×150+0.2×50)이 된다. 결국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은 130이 된다. 만약 이러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왕은 예측 1, 2, 3 모두에서 정책3을 결정한다. 그 경우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은 (0.4×100+0.4×100+0.2×100)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총 100이다. 따라서 이 법령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법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왕이 만약 예측3을 하게 된다면, 법령이 없을 때 왕은 정책3을 결정하여 시민들은 총 100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법령이 있을 때에는 왕은 정책1이나 2를 결정하므로 총 사회적 이익은 50이 된다.
따라서 왕이 예측3을 하게 되면 법령이 있을 때 시민들은 법령이 없을 때보다 더 작은 이익을 얻게 된다.

<논평>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 답안은 수학적 설명보다는 논리적 설명을 주로 사용해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읽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

나) 부족 답안의 사례

사례 1

1. 왕이 (가)의 상황에서 예측1과 정책1을 시행했을 때 사회적 이익: 150, 왕의 개인적 이익: 7이 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이익은 150이 최대이므로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이익이 최대가 아닐 때 왕의 개인적 이익은 -6이 되므로 왕의 순 이익은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1	4
예측2	-1	7	4
예측3	-1	-1	4

이므로 왕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1 하에서 정책 1 또는 예측2 하에서 정책2를 택할 것이다.

3. 확률이 높은 예측1, 2 하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시민들의 불만은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왕에게도 욕심이 있으므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중간 정도로 오는 정책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예측 1, 2 하에서 정책3을 택할 것이다.

4. 예측2, 3 하에서 정책1과 예측1, 3 하에서 정책2보단 정책3이 사회적 이익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측 3의 사회적 이익을 각 정책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예측의 이익과 같거나 적다. 또한 정책3은 어느 예측 하에서든 사회적 이익값이 똑같다. 따라서 시민들은 왕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예측3 하의 정책을 꺼려할 것이다. 또한 예측1, 2와는 다르게 예측3은 인간이 조종 가능한 영역을 벗어난다. 따라서 법령을 내리기 전후의 조사에서 예측3의 사회적 이익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논평>

수리 논술에서 중요한 점은 제시문을 읽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일 것이다. 대부분의 부족 답안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상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엉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위 답안 역시 그러하다. 예를 들어, 2번 소논제를 검토해 보자. 예측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왕은 주어진 예측 하에서 선택한다. 그 선택이 주어진 예측 하에서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위 답안은 마치 예측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측 3과 정책 3의 조합을 선택하면 예측 2와 정책 2 조합을 선택할 때보다 사회적 이익이 낮아져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예측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므로 예측 3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책 3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위 답안은 예측 역시도 선택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후의 논리 진행이 모두 뒤죽박죽이 된 경우이다.

사례 2

1. (가)의 상황에서 왕이 예측1, 정책1을 선택하면 사회적 이익은 정책2, 예측2를 택했을 때와 동일하게 150이라는 최대의 사회적 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불이익을 왕이 받지 않게 된다.

2. 만약, 왕이 개인적인 이익만 고려하고 사회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3을 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회적 이익이 최대가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에게 크기 6의 손실의 제재를 받으므로 10-6=4가 개인적 이익이 된다.
따라서 결국 개인적 이익 또한 어느 경우보다 작아지게 되므로 왕은 시민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를 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1-예측1의 경우 또는 정책2-예측2의 경우가 개인적 이익 7로 최대가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개인적 이익의 최대 경우=사회적 이익의 최대경우가 된다.
예측3의 경우에서는 10-6=4<5이므로 왕은 결국 정책1, 2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이익이 작아지게 된다. 50<100이므로 이 경우는 개인적 이익의 최대 경우≠사회적 이익의 최대 경우이다.

3. (나)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므로 왕은 개인적인 이익을 손실 없이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이익이라면 사회적 이익이 큰 것을 고를 것이므로 예측1의 경우에서는 개인적 이익은 정책1과 3이 3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이익은 50의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의 차이의 비율이 더 크므로 정책1이 가능하다.
예측2의 경우는 개인적 이익의 차는 정책 2에서 3인데 사회적 이익의 차는 50이다. 이 경우는 예측1의 경우와 같으므로 정책2가 가능하다.
예측 3의 경우는 개인적 이익의 차는 정책 1, 2와 3의 차이가 5인데 사회적 이익도 50이다. 정책 3이 둘 다 높으므로 정책3이 가능하다.

4. 정책3이면 손실이 6이므로 왕은 개인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정책3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왕은 차선으로 개인적 이익이 큰 정책1-예측1, 또는 정책2-예측2를 택할 것이므로 사회적 이익도 역시 최대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왕의 선택이 개인적 이익을 항상 최대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이익도 최대가 된다. 하지만 예측3을 왕이 택하게 된다면 왕이 6의 손실을 무릅쓰고 정책3을 택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이익이 50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왕이 예측3을 할 확률은 예측1, 2에 비해 1/2이므로 왕은 예측 1, 2를 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80%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20%의 확률로 예측3을 하게 된다면, 왕이 손실 6을 무릅쓰고 정책3을 고르지 않는 이상 사회적 이익은 50보다 커질 수 없다.
하지만 왕은 10-6=4<5이므로 개인적 이익이 큰 정책 1, 2를 고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회적 이익이 법령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사회적 이익이 커지게 된다.

<논평>

논술에서는 제시문이나 논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하지, 제시문이나 논제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나 가정을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는 제시문이나 논제에 주어지지 않은 가정을 사용하여 자의적으로 문제를 푼 경우이다. 예컨대 소논제 3번을 답하면서 “같은 이익이라면 사회적 이익이 큰 것을 고를 것”이라는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였다. 소논제 4번에 대한 풀이 역시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이다.